

# ‘나’ 안의 부처 찬탄하는

# 노래

##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5>



### 쇠뿔 천개를 몸에 박더라도...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듯이 불교 공부할 때도 처음 의지를 세우는 초발심(初發心)이 중요하다. 우리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을 만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먼저 깨달음의 씨앗을 뿌려야 깨달음의 나무가 성장할 것이다. 처음 마음먹기가 어렵고 그 마음을 유지하며 수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퇴전의 보리심을 내어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세우는 것이다.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높은 빌딩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굳은 결심이 서야한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면서 강인한 의지가 없으면 중도에서 포기하기 쉽다. 어떠한 난관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있어야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강인한 의지는 목표 성취를 위한 에너지인 것이다. 연료가 떨어지면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 자동차는 멈추고 만다. 출발하기 전에 ‘의지’라는 에너지를 가득 채워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 성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 성불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탐욕, 분노, 무지로 오랜 세월을 걸쳐 생사를 반복하였다. 그 뼈를 모았다면 수미산보다 높을 것이고, 머리를 베어 흘린 피는 강물보다 많을 것이며, 흘린 눈물은 바닷물보다 많을 것이다. 이런 생사 반복은 헛되어 목숨만 버린 것이니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내 몸에 쇠뿔을 박더라도 진리를 구할 것이다. 진리를 얻은 연후에 그대들의 번뇌의 병을 끊어줄 것이다.”

왕은 노도자에게 먼저 뜻을 물어 막으면 목숨이 끊어져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할지도 모르니 은혜를 베풀어 먼저 진리를 들려달라고 간청한다. 이에 노도자는 다음과 같은 계승을 읊었다. “모두 덧없는 것이다. 태어난 자는 모두 괴롭다. 모든 것은 비어 실체가 없다. 진실로 나의 것은 없다.”

계승을 마치고 천 개의 못을 몸에 박았다. 그때 제석천이 나타나 물었다. “그대는 지금 고통을 견디어 내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라고 하는데, 무슨 결과를 기대하는가? 제석천이나 천룡 성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마왕이나 범천왕이 되기를 원하는가?” 왕은 대답했다. “나는 삼계의 출가를 과보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덕으로 붓다가 되고자 합니다.” 제석천이 다시 왕에게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자, 왕은 마음속으로

## 성불위해 모든 것 포기할 의지 있어야 진리 씨앗 내 마음밭에서 싹트고 성장

위험한 무엇보다도 성불하겠다는 의지를 굳히는 일임을 명심하며 다음의 경전을 살펴보자.

전생에 붓다가 보살이었을 때 다음과 같이 진리에 대한 마음(보리심)을 보여 주었다고 <현우경>에 전하고 있다. 전생에 붓다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성불을 결심하고 나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이야기가 몇 개 전해지고 있다. 한 때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불구멍이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악신에게 자신의 육신을 바치기도 했다. 오늘 소개하려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전생에 보살은 비룡갈리왕으로 백성들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생활하도록 다스렸다. 어느 날 왕은 재물로 백성을 행복하게 만들었지만 진리로 백성들을 해탈하게 하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누구든지 나에게 진리를 말해준다면 그의 소원을 모두 다 들어주겠다”라고 온 나라에 알렸다. 그때 노도자가 나타나 “만일 대왕의 몸에 천 개의 쇠뿔을 박으면 말해 주겠다”라고 제의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터무니없는 제의를 왕에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왕은 말했다. “나는

로 ‘내가 진실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내 몸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고 엄원하자 왕의 몸이 본래 상태로 회복되었다.

씨가 뿌러지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다. 순수한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 밭에 뿌러지는 것이 불교 공부의 출발이다. 그 말씀의 씨가 마음 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마침내 꺾질이 터져 말씀 속의 생명의 씨가 발아되어 나올 때, 성장의 과정은 시작된다. 씨가 다 자라서 골격과 운곽을 갖추었을 때가 성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붓다처럼 성불을 위해 육신마저 희생하겠다는 의지가 확립되어야 말씀의 씨가 내 마음 밭에 심어지게 된다. 가르침의 씨가 뿌려져야 그 다음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보살핌이 필요하다. 씨도 제대로 뿌리지 않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이 설해 준 경전 덕분에 1000개의 못을 몸에 박지 않아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보살은 자신의 육신마저도 포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는 붓다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40여년간 7백여 곡이 넘는 찬불가를 만드는 등 불교포교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해온 운문 스님의 출세 소원은 더 많은 찬불가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다.

### 운문 스님

192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으며 44년 망월사에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3년에는 해인사 전문강원을 수료했으며, 56년 여수 흥국사 주지, 63년 조계종 중앙총회 의원, 71년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을 역임했다. 66년에는 정소년 교화연합회를 창립했으며, 87년과 90년에는 각각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는 심보불교음악협회를 설립해 찬불가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 운문 스님

(운문사 주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는 것일까. 참 수행자들을 친견할 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천진불심(天真佛心)이다. 동자승처럼 해맑은 모습에서 수행자의 진정한 풍모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3년만에 서울 구기동 운문사에서 만난 운문 스님 역시 편안하고 해맑은 예전 모습 그대로 기자를 맞는다. 굳이 바뀐 모습을 찾으려면 오히려 좋았던 건강 때문에 보다 의욕적으로 변한 것이다.

“요즘도 매일 밤마다 노래 가사를 씁니다. 40여년간 7백여곡에 달하는 찬불가를 만들었지만 요즘 들어 쓰여지는 노랫말이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노랫말을 지을 때는 화두를 때쳐서 모든 잡념이 사라지곤 하죠. 사실 건강 때문에 한동안 가사 쓰는 일을 중단했어요. 2년전부터 건강이 점차 회복돼 이제는 예전처럼 곡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팔순을 코 앞에 둔 나이로 스님의 설명이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였다. 빼곡히 정리해 놓은 오선지 위에 채워져간 노랫말은 200페이지 분량의 책으로 묶어도 족히 서너권이 넘었다. 모두 요새 쓴 것이다. 오히려 작곡자들이 스님의 노랫말을 곡으로 만드는데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다. 어디서 그런 왕성한 창작의 샘물이 흘러져 나오는 것일까. 스님은 한마디로 수행의 원력이라고 말했다.

“내가 평범한 일반 가요를 만드는 작사가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많은 곡들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 겁니다. 평생 번뇌로 방황하는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진리를 쉬운 노랫말로 바꿔 주어야겠다는 원력이 지금까지도 찬불가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되었고 개인적인 수행의 방편도 되었지요.”

하지만 스님이 처음 노래를 만들 당시만 해도 일반인들조차 노래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커서 기

## 기복신앙 빠져있는

## 신도들 보고 충격

## 교리 쉽게 알리자 결심

## 육 법 등 (六法燈)

의정등록제 2002-33243호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용 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등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주)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포천읍 설리동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추천 및 대리점 모집

## 2000만 불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성종사와 (주)비엔비기업이

### 전자종소리+전자시계+오디오+마이크+침등범종(25관) 이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 『기복불가의 신개념 전자종』

## 가릉빈가

총 25관

### ※ 법당에 가릉빈가를 설치하시면...

- ◇ 법문을 할시 경우 종 및 스피커에서 울러나오는 소리가 종속을 통하여 다시 울려피므로 정밀한 법문을 들려줌을 깨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 가릉빈가에 마이크 및 스피커3개를 설치 할수 있으므로 법당에 마이크 시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독경 및 법문 테이프, 명상가요 등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오디오를 마련하실 필요가 없으며, 전자시계가 부착 되었으므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 ◇ 종을 제외한 종뿐만 구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종를 교환도 가능합니다.
- ◇ 원음에 가까운 종소리를 가릉빈가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실외에서의 종소리는 심황의 종소리와 같은 생생한 음향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음향종 및 실제 종을 결합한 한 해의 제품으로 법회시에 도 일반종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기법당에 원무사

☎ 문의처 : 02-733-6141 (대)  
032-772-5451 (대)

● 제품명 : 가릉빈가  
 ● 제품특성 : 국내 최초로 MP3를 내장한 전자종 시계로 100억 M 정도에서도 울장한 종소리 및 녹음인 음원(독경, 명상음악 외) 등을 45분 동안 왕고 울장이며 들을 수 있으며, 마이크로 영프스피커 3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대방의 등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제품기능 : 출력 (정격출력 150W 이상, 최대출력 250W 이상) 리모트 컨트롤 사용(시계 변경, 일관시계조종, 일일적 작동, 불꽃 조절, 기타), 디지털 시계 기능, 스피커 크기 - 6INCH 3개, MP3장착 - 45분(종소리 20초, 독경 40여분 정적), 오토리버스 기능, 불꽃 조절 기능, 메모리 기능 - 메시지 기록 기능(타종 및 수조종 가능) - 일일기능 (3번 작동 가능, 예: 오전, 오후, 저녁) 진원부 - DC24V (3A-5A 10), 마이크로 영프스피커  
 ● 사용방법 : 리모콘으로 작동이 이루어져 모든 버튼이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 소비자가 : 4,500,000원 (종25관+종물+스피커3개+마이크+리모콘+기타+일체포함)  
 ● 총제작업체 : 성종사  
 ● 전자 종물제작업체 : (주)비엔비기업

전국지사 및 판매점, 판매사원 모집 1. 초도지급 300만원 개설 가능 2. 무정모 창업가능 3. 불가에 뜻을 가지고 있는분 우대 [www.bellkorean.com](http://www.bellkorean.com)

# 노래 매일 부르세요

생집이나 할 것이냐'고 부모들이 쌍지팡이를 들고 반대할 때였다. 그래서 스님이 찬불가 운동을 시작한 데에는 남다른 발원이 있을 것 같았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5년경이었어요. 나주 실양사 주지로 소임이 맡겨져 절엘 찾아 갔는데 신도들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도들이 찾아와 스님은 집(寺)을 안배주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지요. 신도들을 호통쳐서 보내고 방 안에서 혼자 앉아 곰곰히 생각해보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모두가 정법대로 공부하지 않아 기복적인 신앙에만 빠져 있다는 생각을 했지요. 기성세대가 이미 굳어져 버려 할 수 없지만 새싹 불자들이라도 일찍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참불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포교방법을 찾는게 급선무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금방 실증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딱딱한 불교 교리보다는 노랫말을 지어 부처님 뜻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생각에 찬불가 포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스님의 남모르는 노력 탓일까,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는 불자들이 찬불가 한두 곡씩은 제법 다 부른다. 그만큼 찬불가가 널리 보급됐다는 증거다. 하지만 스님은 찬불가의 대중화에 대해서 아직도 배가 고프시란다.

“물론 과거에 비해 불자들의 입에서 찬불가가 자주 불리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범회의식이나 특정 무대에서 주를 이루고 있지요. 찬불가의 역사도 이제는 거의 반백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범회할 때 뿐만 아니라 집에서 생활할 때나 아니면 불자들이 아우회 갈 때도 자연스럽게 불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주 다보사 주지시절 신도의 집을 방문했는데 몇집 사람들이 일하면서 찬송가 부르는 걸 보고 큰 감동을 받았지요. 우리 찬불가도 어디서든 생활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불가를 만드는 것도 수행이라 생각하고 씩씩이 노랫말을 짓고 때로는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곡도 썼다. 신기한 것은 제대로 음악교육을 받은 이들이 독자·작곡은 쉽지 않은 일인데 스님은 음악 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구 대학을 나와 전문적으로 음악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분명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 운문 스님이 말하는 '찬불가'

7백여곡이 넘는 찬불가를 만든 운문 스님은 다작(多作)의 비결과 과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신다.

“우선 노랫말을 짓기 전에 경전과 계승을 갖다놓고 뒤져봅니다. 이렇다간 감명을 받은 조사 스님의 계승이 있으면 바로 인용해 노랫말로 바꾸지요. 경전을 오래 읽고 그 의미를 꿰뚫다 보면 노랫말이 자연스럽게 튀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스님의 찬불가들은 2002년 삼보불교음악원회가 펴낸 <찬불가집>에 많이 들어 있다. 이 책은 개화기 이후 작곡된, 2천여 찬불가중 장르에 구분없이 수집해 이를 다시 1300곡으로 압

## “부처님만 생각하면 환희심 넘쳐 노랫말 저절로 나와”

불교음악은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가슴에 깊이 새겨야 좋은 작품이 나옵니다. 목적의식 보다는 부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환희심이 넘쳐 가슴 속에서 노랫말들이 저절로 튀어 나오더라고요. 결국 찬불가는 내 안의 부처님을 찾고 찬탄하는 구도의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물이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해 조롱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보람을 느낀 적도 많았다. 특히 요즘에는 전국 사찰에 합창단이 활성화돼 스님의 곡들이 불려 지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또 40여년의 고승들 한순간에 허물을 뜨리는 갈로수 같은 격려도 큰 힘이 된다. 몇해 전에는 봉선사에서 한글대장경 출판 봉정식에 앞서 연합합창단 공연이 열렸는데 “스님 옛날에는 노래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장난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스님의 원력이 대단했었네”하고 월운 스님이 칭찬을 했다.

“합창단 뿐만 아니라 산사음악회가 많이 열리는 것도 이런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불과 10여년 전 같으면 어디 산속에서 감히 노래를 부를지나. 당장 쫓겨나지요. 끝복상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대중화 되기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나다. 비록 낫노래라도 좋으니 아무데서나 찬불가를 부르는 불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금방 피곤해져 많은 곡을 쓰지 못한다는 스님이지만 방바닥에 널려 있는 악보집이 이상해 여쭈어 보니 아직도 한창 때 못 지었다. 정부가, 최영철, 김동환씨 등 한창 활발하게 활동하는 음악가들에게 노래를 써줘 곡을 기다리고 있다며 내놓는 가사집이 자그만치 300페이지가 넘는다.

원고 등치를 보여 깨달았다. 처음 찬불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나 회향할 시기인 지금이나 자신의 원

## 가사 음미하며 부르는 찬불가는 참선 정진의 효과

축한 다음 전문가들이 330곡을 선별해 편집했다. 운문 스님은 “창작 찬불가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찬양합시다’와 ‘미타의 품에 안겨’와 같이 외국 곡이나 찬송가에 가사를 붙인 곡들이 많았다”며 “60년 후반부터 추월성세를 시작으로 정민섭, 이찬우, 김희조, 이호섭씨 등이 90년대까지 왕성하게 곡을 만든 것이 창작 찬불가의 변천 과정”이라고



마지막 회향을 위해 찬불가 대중화에 전력하겠다는 운문 스님.

력을 위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주지 그만 하고 선방에나 가자는 말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이 고마웠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몇 번 들게 되자 은근히 화가 났다. 사람이란 모두 각자 사는 것이고 각자 삶의 방향에 대해 최선이냐는 확신이 있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았다.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최상인지는 결코 객관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의 문제라는 것을 그에게 말해 주어야만 할 것 같았다.

“스님, 선방에 다니는 것은 정당하고 주지를 사는 것은 그런 것인가? 선객은 최상이고 주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화두가 곧 살고 삶이 곧 화두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의 모습이 문득 문득 그리워지는 것은 선객의 길이 내게 끝내 그리움으로 남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사발을 하고 나면 유난히 반짝이던 그의 머리. 해인사 강원 시절 삭발하는 날 반짝반짝 대머리 노래 부르다 분노해 쫓아오던 그를 피해 도망치던 일들이 아름답게 떠오른다.

영원한 선객, 보륜스님. 달랑 걸망 하나를 메고 갈지지만 그가 당당해 보이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길이 무척이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글=김주일기자·사진=고영배기자

설명했다.

바른 수행을 위한 방편으로 기도나 참선, 열불을 공부하는 것처럼 찬불가를 한 곡 부르더라도 이와같은 마음가짐으로 불려야 한다는 스님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며 “찬불가를 부를 때 웅맹정진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사를 음미하면서 부른다면 참선할 때처럼 선정의 효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현재 ‘님의 모습 낙원이 여기로세’ ‘아기 보살 싯달타 왕자’ ‘비로자나 공덕 찬탄가’ 등 30여편 가락을 연주하는 장편곡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성전스님의 스님이 이야기

보륜 스님

걸망을 매되 언제나 깔끔하고 웃을 입되 언제나 단정하다. 세수할 때는 언제나 뒷도리를 벗고 얼굴을 씻고 방을 치울 때는 구석 구석까지 걸레질을 꼼꼼히 한다. 불갑지만 냉정하고 냉정하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 보륜 스님이다. 혼자 휘파람 불기를 좋아해 아무도 없는 산길을 걸을 때면 유유히 부는 휘파람 소리는 참 듣기 좋았다.

해인사 강원을 졸업하고 보륜 스님은 선방을 다녔다. 해제 때 이따금 보는 그는 예전의 모습 그대로 멧방이 수좌의 위의를 갖추고 있었다. 선객의 풍모가 더해진 그의 모습은 그 깔끔함의 이유마저 찾은 듯 깊이가 있어 보였다. 그의 어루도 잡다한 설명을 떠나 있었다.

내가 서울서 주지를 살고 있을 때 그는 몇 번



그림·문명성

나를 찾아왔다.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주지 그만 하고 선방에나 가자는 말이었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이 고마웠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몇 번 들게 되자 은근히 화가 났다. 사람이란 모두 각자 사는 것이고 각자 삶의 방향에 대해 최선이냐는 확신이 있는 것인데 그는 그것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 같았다.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최상인지는 결코 객관의 문제가 아니라 주관의 문제라는 것을 그에게 말해 주어야만 할 것 같았다.

“스님, 선방에 다니는 것은 정당하고 주지를 사는 것은 그런 것인가? 선객은 최상이고 주지를 하고 있을 것이다. 화두가 곧 살고 삶이 곧 화두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의 모습이 문득 문득 그리워지는 것은 선객의 길이 내게 끝내 그리움으로 남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사발을 하고 나면 유난히 반짝이던 그의 머리. 해인사 강원 시절 삭발하는 날 반짝반짝 대머리 노래 부르다 분노해 쫓아오던 그를 피해 도망치던 일들이 아름답게 떠오른다.

영원한 선객, 보륜스님. 달랑 걸망 하나를 메고 갈지지만 그가 당당해 보이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길이 무척이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글=김주일기자·사진=고영배기자

건방진 소리를 했는가 하고 후회했다. 그가 내게 얼마나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었던 가를 그가 말없이 떠나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것이다. 그가 보기에 나는 불안했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 어찌된 내가 다시는 공부 길에 오르지 못할 것만 같았던 것이다.

주지를 살고 선방을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절대로 중심을 잡고 그 내용을 담아 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예리하게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게 선방에 가자고 권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후회는 늘 늦게 찾아와 사람을 쓸쓸하게 한다.

어느 날 그가 다시 찾아와 내게 다시 선방에 가자고 조를지 기약이 없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도반을 마음 아프게 보냈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도반의 마음도 읽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한 어리석음이 어둠이 내리도록 묻히지 않았다.

나는 태안사 선방에서 그와 함께 겨울 안거를 보낸 적이 있다. 그 때 그는 내게 참으로 세심하

## 달랑 걸망 하나 메고 다니는 영원한 선객

게 배려해 주었다. 옷에 풀을 할 때면 더딘 나를 대신해 옷에 풀을 해주었고, 선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었다. 방선시간이면 함께 포행을 다니고 자유정진 시간이면 동리산을 종주하고는 했다. 그는 아마도 도반 하나가 선객이 되어 선방에 그와 함께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좋았던 것 같다.

나는 그와 한 절을 같이 살았을 뿐이다. 그 후 잘 만나지 못했다. 그는 산으로 산으로 걸망을 메고 다녔고 나는 서울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았다. 서울에 살다 산이 그리울 때면 그가 떠오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되는데 고개 반성할 때면 그와 함께 공부하던 선방 시절이 그리워지고는 했다. 서울서 주지를 살 때 내가 그에게 했던 말도 어찌런 영원한 선객의 기풍으로 살아가는 그의 멋진 삶에 대한 시샘이있지도 모른다.

그는 이 절도 선방에서 성성하게 화두를 잡고 하고 있을 것이다. 화두가 곧 살고 삶이 곧 화두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의 모습이 문득 문득 그리워지는 것은 선객의 길이 내게 끝내 그리움으로 남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사발을 하고 나면 유난히 반짝이던 그의 머리. 해인사 강원 시절 삭발하는 날 반짝반짝 대머리 노래 부르다 분노해 쫓아오던 그를 피해 도망치던 일들이 아름답게 떠오른다.

영원한 선객, 보륜스님. 달랑 걸망 하나를 메고 갈지지만 그가 당당해 보이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길이 무척이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 월간 <해인> 편집위원

글=김주일기자·사진=고영배기자

## 이젠! 깊은산요초 향기를 "공양" 올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제일 공양 태우지 않아 연기없는 정각향 출시**

우리산 나무, 잎, 열매를 따서 해초로 만들어진 전통법제향은 참깨를 볶아 고소함을 내는 비법과 같습니다. 깊은산 자연으로 불자님의 건강은 물론 생활이 더욱 좋아질것 같은 선풍품 그 소중함을 안겨드립니다.

**사용처**

- 법당과 선방으로 배당되고 있습니다.
- 최고의 기법 비서실에서 다시 찾는 향입니다.
- 불자님의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물론 집중력이 필요한 공부방에서 자동자연까지 숲속의 맑은 정기를 채워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용후**

- 21가지 산요초와 숲길 난초국화, 물에 좋은 모래는 물론 나쁜 재앙을 물리치는 경명의 힘까지 함유되어 사용후 배게속에 넣어 다시 사용하는 천연향입니다.
- 마음이 편안한 향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법당의 냄새는 물론 담배상까지 점점 줄어드는 자연향에서 집안에 수액결정, 시멘트 및 화학 물질의 독성까지 걱정을 덜어주는 천연광물질의 힘이 담긴 향일정기를 하루에 한입(적은일은 두세입)씩 두루мя에 보충시켜주시시오.
-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향기의 신비로운 눈에 보이지 않는 "향"이 머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제품속에 영유이 깃드는 신비의 물**

경명이 첨가되었으므로 한두알씩 주머니속에 넣어 보이지 않는 좋은 향기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차량용                      가정용

경제적인 아로마 알갱이 리필

제조원 **세계적인 정각향 알갱이를 만드는 법제력!**

**KOREA Aroma** 알갱이  
**www.Aromamall.org**  
고객센터 051)633-4070 / 행정인 직통 011-9384-4801  
입금계좌 : 국민은행 107-21-0904-797 예금주 : 김도현

## 사찰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 • 견전지용 초 • 정사소롱 및 손잡이대

**등 간 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정품)**

- ▶ 불계 고주전구, 인기전구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가 예(특 월라멘트)로 빛이 열등이 밝고 절연 효과가 있다.

**불제 견전지용 초**

- ▶ 정사소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 (탐들이, 방명)등 바람이 불어도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등에 적당 합니다. (견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986-0277-8    구입문의 0212266-2634    0212263-2638  
 구입문의 032)582-6235-6    011)630-706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